

## GETI 아르메니아 도시회복력강화훈련 지원

6월 16일부터 3일간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준비완료”(“Making Cities Resilient; My city is getting ready”) 주제로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에 대하여 3일간의 트레이너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국(인천)에 있는 UNISDR 국제방재연수원과 UNDP 아르메니아 재해경감사업 및 아르메니아 정부기관인 ‘국토및비상상황관리부(MTAES)’와 재해경감국가플랫폼 및 위기관리국가교육원(CMSA)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트레이너 교육의 첫번째 시도였으며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 프레임워크 관련한 아르메니아의 강사진 목록을 만들게 되었다.

위기관리국가교육원(CMSA)은 트레이너의 전문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다. 트레이너들은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주제 및 글로벌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을 수행할 도시안전 강사 및 트레이너로서 새로운 교육생들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지역 재해경감 조직안에 참여 할 것이다. 위기관리교육원(CMSA)에 따르면, 트레이너들의 능력개발과정은 1년 반동안 지속될 것이다.

아르메니아 재해경감국가플랫폼은 전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조언과 상담, 원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해경감국가플랫폼 과장 모브스(Movses Poghosyan)씨는 개회사를 발표했다.** 개회사에서 재해경감의 중요 역할자들- 교육기관, 이해당사자, 다른 관심 파트너(UNDP, UNISDR 방재연수원, 국토와비상상황관리부, 재해경감지역조직 등)-와의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협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UNDP, UNISDR 방재연수원 및 BCPR(Bureau for Crisis Prevention and Recovery)의 협력사업의 기초가 되었던 MADRID(Mainstreaming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to Development, 적응 및 재해위험경감과 개발 통합) 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글로벌 캠페인과 관련하여 그는 UNISDR 방재연수원, UNDP, 국토및비상상황관리부 및 기타 회복력 분야 활동의 중요 참가자들과의 장기적인 협업과 관계유지를 강조하였다. 아르메니아의 18 개 도시가 이미 도시캠페인에 가입하였다.

재해경감국가플랫폼은 도시캠페인관련하여 지원과 협업을 지속할 것이며 아직 도시회복력강화 프레임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들이 캠페인 목표에 도달하도록 모든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재해경감국가플랫폼은 UNDP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도시들이 '회복력강화행동계획 (Resilience Plan of Action)'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개발 4 개년 계획(the communities' development 4 years plans)'을 추진하도록 도울것이다.



**폐회사는 위기관리국가교육원(CMSA) 교장인 할멧 (Hamlet Matevosyan) 씨와 UNDP 재해경감사업조정관인 아르멘 (Armen Chilingaryan)씨가 발표했다.**

할멧씨는 “이번 교육은 위기관리국가교육원과, UNISDR 방재연수원, UNDP, 재해경감 국가플랫폼(DRR NP) 그리고 국토및비상상황관리부(MATES)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글로벌 캠페인 프레임안에서 일년 이상 함께 일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흡족함 그 이상이다.

트레이너의 훈련은 아르메니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식 트레이너는 도시회복력의 개념을 전파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 할 수있는 담보 중의 하나이다. 이제부터 훈련된 강사들은 위기관리국가교육원(CMSA)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재해경감 조직과 국가의 하부 조직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위기관리국가교육원(CMSA)은 이미 학사 및 석사 연구과정 뿐 아니라 일반교육과정안에 '회복력 강한 도시'의 개념과 캠페인 목표, 도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이미 교육원에 도시 회복력 관련 논문주제(학위 과정)가 있었다.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 성공적인 경험으로 스테파나반시의 도시회복력 모델이 논문 주제의 기초가 되었다. 이 과정을 위해, 교육원 강사 및 재해경감 지역조직 그리고 재해경감국가플랫폼 대표들이 상응되는 재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 폐회사에서 UNDP 재해경감사업조정관인

**아르멘(Armen Chilingaryan)씨는아르메니아의 UNDP 가 주요 파트너 사이의 강력한 협업을 지원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UNDP 아르메니아와 UNISDR 방재연수원 사이에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도시회복력 강화 의 국제적 실행은 국토및비상상황관리부(MATES), 위기관리국가교육원과, 재해경감 국가플랫폼(DRR NP), 인도적지원조정실(OCHA), 유엔아동기금(UNICEF), 월드비전아르메니아, ARCS 그리고 OXFAM 과 같은 주요 재해경감 파트너들간의 협업으로 아르메니아(스테파나반시 롤모델)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 아르메니아에는 국토및비상상황관리부(MATES), 위기관리국가교육원과, 아르메니아 재해경감 국가플랫폼(DRR NP)과 같이 캠페인 뿐 아니라 회복력개념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능력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있다.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업유지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한다. 현재 우리는 도시회복력 관련하여 아르메니아어와 러시아어 그리고영어로 훈련과 연구과정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국가 파트너(MTAEs, CMSA and Armenia DRR National Platform)들이 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위한 연구와 훈련 자원이 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역 전문가를 구축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멘(Armen Chilingaryan)씨는 UNISDR 방재연수원, UNDP, 국토및비상상황관리부(MATES), 위기관리국가교육원과, 아르메니아 재해경감 국가플랫폼(DRR NP)과 아르메니아의 도시들을 회복력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동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업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했다.